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5년 6월 15일
(월요일)

강북신문 1면



강북구의회 의원들이 6월9일 구의회 3층 의원휴게실에서 이인영 강북구보건소장으로부터 메르스 대책 업무보고를 받았다.

강북구 메르스 대책 보고받고 의견나눠

강북구의회, “의심환자 관리 철저히 하고 예방과 방역에 최선을” 강조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는 6월9일 오전 10시 구의회 3층 의원휴게실에서 이인영 강북구보건소장으로부터 메르스 대책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동식 의장 등 12명의 의원들은 중증호흡기증후군(MERS)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메르스의 전반적인 상황과 강북구의 대처방안과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이인영 보건소장으로부터 중증호흡기증후군(MERS)에 대한 증상, 감염경로, 감염증상 신고, 생활속 예방수칙 등을 보고 받았다.

이인영 보건소장은 보고를 통해서 국내에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확진환자 발생 이후 지속적인 추가 환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전파 우려에 따라 대비, 대응 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강북구 지역사회로 감염 및 전파 차단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경수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강북구 비상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히 유선보고 및 대응하도록 체제를

갖추고 전문 의료진으로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며 보건소내에 진료(상담)실 및 CALL센터(901-7704-3)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기침으로 메르스 구분방법 △일반감기와 구별방법 △의심환자의 진료장소 △강북구에서 메르스 발생현황에 대한 발표 여부 △메르스 감염경로와 방역방법 △자택격리자 해제시점과 관리방법 △단체행사 개최여부 △메르스 예방 홍보방법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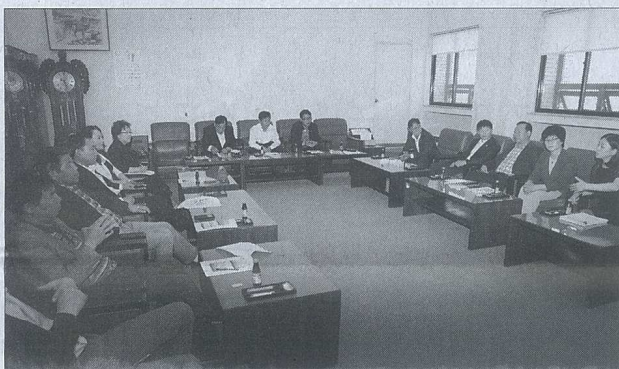
이에 이인영 보건소장은 메르스 바로알기를 설명하면서 메르스 예방수칙으로 자주 손 씻기를 실천하고 악수를 자제하며 기침이나 재채기시 손수건이나 휴지로 가리고 하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고 가능한 단체행사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동식 의장은 “모든 주민들이 중증호흡기증후군(MERS)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수 있도록 메르스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메르스에 의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심환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방과 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포스트 5면

강북구의회 메르스 대책 보고 받아

의심환자 관리 철저히 하고 예방과 방역에 최선을 당부



강북구의회 의원들이 9일 구의회 3층 의원휴게실에서 보건소장으로부터 메르스 대책 업무보고를 받았다.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는 6월9일 오전 10시 구의회 3층 의원휴게실에서 보건소장으로부터 메르스 대책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동식 의장 등 12명의 의원들은 중증호흡기증후군(MERS)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메르스의 전반적인

상황과 우리구의 대처방안과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중증호흡기증후군(MERS)에 대한 증상, 감염경로, 감염증상 신고, 생활속 예방수칙 등을 보고 받았다.

이인영 강북보건소장은 보고를 통해서 “국내에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확진환자 발

생 이후 지속적인 추가 환자가 발생이 있으며 지역사회 전파 우려에 따라 대비, 대응 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강북구 지역사회로 감염 및 전파 차단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자 박경수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강북구비상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히 유선보고 및 대응하도록 체제를 갖추고 전문 의료진으로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며 보건소 내에 진료(상담)실 및 CALL센터(전화 02-901-7704-3)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의심환자 접촉자 밀착관리를 위하여 1:1 직원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접촉자 1인 1담당제를 실시하여 자가격리자 및 가족 등 준수사항에 대한 생활수칙을 안내하고, 자가격리자에 대하여 1일 2회 이상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방문을 통해서 더 이상 전염되지 않도록 의심환자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강북구에는 6월8일 현재 메르스 확진환자는 없으며, 접촉대상자 중 자가격리자는 13명, 능동감시자는 1명, 중증에서 입국한 1명 등 총 15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또 우리구의 메르스 발생현황 공개에 대한 부분은 공개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감 조성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대책본부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하고, 공공시설 출입문 손잡이 부분과 엘리베이터 버튼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 메르스 예방을 위해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대답했다.

의원들은 기침으로 메르스를 구분할 수 있는지? 일반감기와 구별방법은? 의심환자의 진료장소는? 우리구에서 메르스 발생현황에 대한 발표 여부? 메르스 감염경로와 방역방법? 자택격리자 해제시점과 관리방법? 단체행사 개최여부, 메르스 예방 홍보방법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했다.

보건소장은 “메르스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급성호흡기 질환으로 발열,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구토, 설사 증상이 있으며 잠복기는 2~14일정도이며, 감염경로는 1차 낙타와 접촉, 2차 환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같은 공간에 머문 경우가 해당되며 메르스의 의심환자는 발열과 폐렴증상이 있는데 14일 이내 중증지역 방문,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메르스 확진환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예방수칙으로 자주 손 씻기를 실천하고 악수를 자제하며 기침이나 재채기시 손수건이나 휴지로 가리고 하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고 가능한 단체행사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동식 의장은 “모든 주민들이 중증호흡기증후군(MERS)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수 있도록 메르스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메르스에 의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심환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방과 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강북구의회, 보건소장으로부터 메르스 대책 보고 받아!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는 지난 9일 오전 구의회 3층 의원휴게실에서 이인영 강북구 보건소장으로부터 메르스 대책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김동식 의장 등 12명의 의원들은 중동 호흡기증후군(MERS)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메르스의 전반적인 상황과 우리구의 대처방안과 추진계획 등에 대해 이인영 보건소장으로부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에 대한 증상, 감염경로, 감염증상 신고, 생활속 예방수칙 등을 보고 받았다.

이인영 보건소장은 “국내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진환자 발생 이후 지속적인 추가 환자 발생이 있으며 지역사회 전파 우려에 따라 대비, 대응 강화계획을 수립해 강북구 지역사회로 감염 및 전파 차단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자 박경수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강북구비상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히 우선보고 및 대응하도록 체계를 갖추고 전문 의료진으로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며 보건소내에 진료(상담)실 및 CALL센터(전화 02-901-7704~3)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의심환자 접촉자 밀착관리를 위해 1:1 직원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접촉자 1인 1담당제를 실시해 자가격리자 및 가족 등 준수사항에 대한 생활수칙을 안내하고, 자가격리자에 대하여 1일 2회이상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방문을 통해서 더 이상 전염되지 않도록 의심환자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강북구에는 지난 8일 현재 메르스 확진환자는 없으며, 접촉대상자 중 자가격리자는 13명, 능동감시자는 1명, 중동에서 입국한 1명 등 총 15명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의원들은 기침으로 메르스를 구분할 수 있는지? 일반감기와



구별방법은? 의심환자의 진료장소는? 우리구에서 메르스 발생현황에 대한 발표 여부? 메르스 감염경로와 방역방법? 자택격리자 해제 시점과 관리방법? 단체행사 개최여부, 메르스 예방 홍보방법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이인영 보건소장은 “메르스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급성호흡기 질환으로 발열,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구토, 설사 증상이 있으며 잠복기는 2~14일정도이며, 감염경로는 1차 낙타와 접촉, 2차 환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같은 공간에 머문 경우가 해당되며 메르스 의심환자는 발열과 폐렴증상이 있는데 14일이내 중동지역 방문,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메르스 확진환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예방수칙으로 자주 손 씻기를 실천하고 악수를 자제하며 기침이나 재채기시 손수건이나 휴

지로 가리고 하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고 가능한 단체행사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또한, “메르스 발생현황 공개에 대한 부분은 공개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감 조성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대책본부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하고, 공공시설 출입문 손잡이 부분과 엘리베이터 버튼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 메르스 예방을 위해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동식 의장은 “모든 주민들이 중동호흡기증후군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메르스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메르스에 의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심환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방과 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영일 기자

강북보건소장 메르스 긴급 대책 보고

8일 현재 메르스 확진환자 없고 자가격리자와 능동감시자 15명 보고
김동식 의장, “주민들 MERS불안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대처” 당부



강북구의원들이 이인영 보건소장으로부터 메르스 관련 강북구의 상황현황을 듣고 있다.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은 지난 9일 오전 10시 구의회 3층 의원휴게실에서 강북보건소 이인영 소장으로부터 메르스 대책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동식 의장 등 12명의 의원들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메르스의 전반적인 상황과 우리구의 대처방안과 추진계획 등에 대해 보건소장으로부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에 대한 증상, 감염경로, 감염증상 신고, 생활 속 예방수칙 등을 보고 받았다.

이인영 보건소장은 보고를 통해 “국내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진환자 발생 이후 지속적인 추가 환자 발생이 있으며 지역사회 전파 우려에 따라 대비, 대응 강화계획을 수립하여 강북구 지역사회로 감염 및 전파 차단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자 박경수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강북구비상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히 우선보고 및 대응하도록 체계를 갖추고 전문 의료진으로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며 보건소 내에 진료(상담)실 및 CALL센터(전화 02-901-7704~3)를 운영하고 있다. 또 의심환자 접촉자 밀착관리를 위해 1대 1

직원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접촉자 1인 1담당제를 실시해 자가격리자 및 가족 등 준수사항에 대한 생활수칙을 안내하고, 자가격리자에 대해 1일 2회 이상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방문을 통해서 더 이상 전염되지 않도록 의심환자관리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데 강북구에는 8일 현재 메르스 확진환자는 없으며, 접촉대상자 중 자가격리자는 13명, 능동감시자는 1명, 중동에서 입국한 1명 등 총 15명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보고를 들은 의원들은 기침으로 메르스를 구분할 수 있는지, 일반감기와 구별방법은, 의심환자의 진료장소는, 우리구에서 메르스 발생현황에 대한 발표 여부, 메르스 감염경로와 방역방법, 자택격리자 해제시점과 관리방법, 단체행사 개최여부, 메르스 예방 홍보방법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보건소장은 메르스 바로알기를 설명하면서 “메르스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급성호흡기 질환으로 발열,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구토, 설사 증상이 있으며 잠복기는 2~14일정도이며, 감염경로는 1차 낙타와 접촉, 2차 환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같은 공간에 머문 경우가 해당되며 메르스의

심한자는 발열과 폐렴증상이 있는데 14일 이내 중동지역 방문,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메르스 확진환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예방수칙으로는 “자주 손 씻기를 실천하고 악수를 자제하며 기침이나 재채기 시 손수건이나 휴지로 가리고 하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고 가능한 단체행사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했다.

또 강북구의 메르스 발생현황 공개에 대한 부분은 공개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감 조성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대책본부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하고, 공공시설 출입문 손잡이 부분과 엘리베이터 버튼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 메르스 예방을 위해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대답했다.

이에 김동식 의장은 “모든 주민들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메르스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메르스에 의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심환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방과 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업무보고를 마쳤다.

최현규 기자(donstopme@hanmail.net)